



정재규

부산진구 지회장

# 무등록 업체, 강력한 법적제재 필요

자신에 대한 투자로 블루오션 찾아야

보일러설비업을 지속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럴때마다

한번 맺은 인연을 변함없이 친절로 대하고 유대관계를 돈독하게 지켜왔다.

그러다보면 기회는 반드시 온다고 생각하고 견뎌왔으며, 그 생각은 옳았다고 생각한다.

정재규 부산 진구 지회장은 70년도부터 보일러업에 종사해 현재 35년이란 시간을 보일러 업에 변함없이 일해오고 있다.

원동기면허가 없이 여러 어려움에 부딪쳐 자격증을 취득했고, 80년에 운수운돌 자격증을 취득하면서부터 우리 협회와의 인연이 맺고 있는 정재규 지회장을 만나봤다.

지회장으로써의 각오와 비전, 협회 활성화 방안은?

모든 일에는 정직성이 우선되어야 한다. 지회를 이끌어가는 일에도 정직과 믿음을 밑바탕으로 회원 상호간에 단합과 협조가 없다면 무질서와 시기만 존재하는 협회가 될 뿐이다.

새로운 프로젝트가 많은 회원을 살린다면 이면의 많은 사람을 죽일 수도 있음을 기억하며, 모든일에 다같이 이득이 될 수 있도록 심사숙고하면서 정책을 펼쳐나가고 있다.

리더는 아무리 뛰어난 힘을 갖고 있더라도 회원들이 통제하지 못한다면 운영의 어려움을 겪게 된다. 무엇보다도 회원들의 마음을 헤아리려 노력하고 있다.

지역의 현안은 어떤 점이 있고 지회의 해결방안은 어떻게 됩니까?

사회생활에서 사람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 인맥을 저버리고 살 수는 없기 때문에 차마 무등록업체를 고발고발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등록업체의 관한 강력한 법적 제재를 마련하여 시작도 못하도록 해야만 무등록업체가 소멸될 것이다.

무등록에 관한 미비한 정책이 지속된다면 정직하게 일하는 설비인들만 피해를 입게 되고 설비시장은 음지의 시장이 변하게 될 것이다.

경기불황으로 설비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불황을 이겨내는 나만의 비법이 있나?

빛이 밝을수록 그림자는 더 짙어진다는 말이 있다. 모든 일에는 양면성이 존재한다는 뜻으로 비록 지금 힘들더라도 저 건너편에는 빛이 있다고 생각하며, 견뎌내는 인내심이 필요하다.

어려움 극복을 위해 다같이 앞장서면 곧 밝은 빛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보일러설비업을 지속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럴때마다 한번 맺은 인연을 변함없이 친절로 대하고 유대관계를 돈독하게 지켜왔다. 그러다 보면 기회는 반드시 온다고 생각하고 견뎌왔으며, 그 생각은 옳았다고 생각한다.

불황이라 하여 나태하면 어려움이 배가 되어 돌아오게 마련으로, 이런 때일수록 나에게 더 많은 투자를 하여 나만이 할 수 있는 기술을 배우고, 나만의 특별한 기술로 틈새시장, 블루오션을 찾아야 한다.

중앙회와 제조업체 정부 등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협회는 회원들의 권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걸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제조업체 즉, 대리점의 횡포는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고 보여지는 실정이다. 무엇보다도 설비인의 우리의 고유권리를 찾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한다.

회원 및 비회원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자격증을 소지하고도 권리 행사를 하지 않는 회원이 절반이 넘고 있다. 이들 중 비회원은 가까운 지부지회에 가입하시어 즐겁고 안정되게 업을 영위하며, 설비인으로써의 “나”를 찾길 바란다.

BN